AI PESONAL FINANCIAL ROBOADVISOR

주간투자전략 (5/4~5/8)

코스피 신고가 이후, 반도체 다음 상승 동력은 어디에서 확산되는가!

- 신고가 돌파 이후 단기 과열 해소 국면 속 실적 중심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
- 또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전환이 시도되는 국면
- 추격 매수보다는 비중 확대 유지 + 변동성 활용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
- 유망 섹터는 반도체 및 IT 소부장, AI 전력인프라, 기계, 방산, 금융 섹터

신고가 돌파 후 단기 과열 해소 및 실적 중심 상승 추세 유지 구간

신고가 돌파 이후 단기 과열 해소 국면 속 실적 중심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

이번 주(5/4~5/8) 한국 증시는 **신고가 돌파 이후 단기 과열 해소 국면 속 실적 중심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으로 정의된다. 최근 코스피는 3 월 저점 이후 약 30% 이상 급등하며 단기적으로는 매물 소화와 차익실현 압력이 불가피한 상황에 진입했으나, 본질적으로는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중심 이익 사이클 상향이라는 구조적 상승 동력이 유지되는 국면이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의 CAPEX 투자 규모가 2026 년 약 6,500 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되고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는 흐름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전환 국면

이번 주 시장은 금리·유가·실적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국면이다. 4 월 FOMC 는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매파적 스탠스를 강화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켰고,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다만 이러한 매크로 변수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이를 상쇄하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시장은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전환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 조정은 주도주 매집 기회

추격 매수보다는 비중 확대 유지 + 변동성 활용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

이번 주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공격적 추격 매수보다는 **비중 확대 유지 + 변동성 활용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상승장에서는 조정 빈도와 폭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오히려 주도주 매집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AI 전력 인프라, IT 소부장 등 기존 주도 업종 내에서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및 IT 소부장, AI 전력 인프라 및 기계, 방산, 금융 섹터

투자 유망 섹터 및 관심 종목

이번 주 투자 유망 섹터 및 관심 종목은 AI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 후공정·패키징 투자 확대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익 상향 강도가 가장 높은 **반도체 및 IT 소부장(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나머티리얼즈, 대덕전자, 리노공업, 심텍)**과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및 초고압 송전 투자 확대가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AI 전력 인프라(LS ELECTRIC, HD 현대일렉트릭)**, 또한 글로벌 인프라 투자 및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실적 가시성이 동반되는 **기계·방산(LIG 넥스원)**과 거래대금 증가 및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따른 수익성 방어 매력이 부각되는 **금융(KB 금융)**도 유효한 투자 대상이다.

결국 이번 주는 반도체 중심 주도주 축을 유지하면서 전력 인프라와 일부 경기민감 업종으로 선택적 확산이 나타나는 구조이며, 금융은 공격적 상승보다는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보완하는 방어축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적절한 구간이다.

[금주 5 대 핵심 관전 포인트 등]

금주 KOSPI
6,300 ~ 6,800 pt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6,300 ~ 6,800 포인트로 제시한다.

상단은 반도체 실적 상향과 AI 투자 지속이 확인될 경우 열릴 수 있는 구간이며, 하단은 유가 상승 및 금리 부담 확대 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구간이다. 중기적으로는 EPS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금주 주요 이슈로는 첫째, AI 투자 사이클의 구조적 지속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의 CAPEX 확대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투자 사이클로 해석된다. 특히 투자 증가율이 유가 상승률을 상회하면서 기업 이익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및 IT 인프라 업종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실적 장세 본격화

현재 시장은 금리 변수보다 실적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국면이다. 코스피 상승은 선행 EPS 레벨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EPS 가 유지되는 한 상승 추세 훼손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과거 대비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실적 흐름이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셋째, 고유가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압력

WTI 가격이 100 달러를 상회하는 상황은 인플레이션 경로를 재자극하는 요인이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키고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만 현재는 유가 자체보다 금리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

넷째, 순환매 장세 본격화

신고가 돌파 이후 시장은 단일 업종 주도에서 벗어나 이익 개선이 확인되는 업종으로 순환매가 확산되는 흐름이다. 특히 영업이익률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점이 특징이다.

다섯째, 금리 경로 불확실성 확대

FOMC 에서 매파적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실적 기반 상승을 더욱 부각시키는 환경을 형성한다.

[주간 상승, 하락, 변수 요인]

상승 요인

첫째, **반도체 중심 이익 사이클 확대**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수요 증가가 동시에 작용하며 반도체 업종의 실적 상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코스피 전체 EPS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둘째, **AI 투자 확대의 구조적 지속성**이다. AI 투자는 단기 테마가 아닌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CAPEX 증가가 경기와 기업 이익을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밸류에이션 매력 유지**이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도 선행 PER 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이는 글로벌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으로 작용한다.

하락 요인

첫째,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 및 기업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실현 압력**이다. 급등 이후 시장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조정하는 구간에 진입하며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금리 인하 기대 후퇴**이다.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는 성장주 중심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밸류에이션 조정 압력을 유발한다.

변수 요인

첫째, **중동 지정학 리스크**이다. 유가와 환율을 동시에 움직이는 핵심 변수로, 시장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이다.

둘째, **연준 정책 방향 변화**이다. 워시 체제 출범 이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실적 시즌 결과**이다. 기대 대비 실적 괴리는 시장 조정의 직접적인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

[금주 투자 유망 섹터]

1. 반도체 / IT 소부장

AI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며 실적 상향 강도가 가장 높은 핵심 주도 섹터이다. 특히 HBM 중심의 고부가 메모리뿐 아니라 DDR·NAND 등 레거시 제품까지 가격 반등이 확산되면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강화되는 구조이며, 후공정·패키징·테스트까지 수요가 연결되는 점에서 소부장 전반으로 실적 확산이 나타나는 구간이다.

2. AI 전력 인프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전력 수요 증가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다. AI 서버의 전력 소비량 증가와 초고압 송전망 확충, 변압기 및 전력기기 교체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력 장비 및 전력 자동화 기업 중심으로 이익 가시성이 높은 흐름이다.

3. 기계 / 조선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설비 투자 수요가 지속되는 구조이다. 신흥국 중심의 건설·광산 장비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며, 조선 업종은 기존 수주 잔고 기반 실적 안정성에 더해 LNG 및 해양 플랜트 투자 확대 기대가 반영되는 구간이다. 경기 민감주 성격을 가지지만 현재는 실적 가시성이 동반되는 업종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4. 금융 / 증권

거래대금 증가와 유동성 유입이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이다. 금리 방향성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순이자마진(NIM) 개선과 자산운용 수익 확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하방 안정성과 수익성 방어력이 동시에 부각되는 구간이다.

[주요 관심 10 종목 및 포인트]

관심 10 종목

삼성전자(005930): DDR 및 NAND 가격 상승과 AI 수요 지속이 동시에 반영되며 메모리와 파운드리 전반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핵심 대장주이다.

SK 하이닉스(000660): HBM 중심의 AI 메모리 수요 확대가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고부가 제품 비중 상승을 통한 구조적 이익 성장 국면이다.

하나머티리얼즈(166090): 식각 공정용 소재 국산화와 반도체 미세공정 확대가 연결되며 안정적인 수요 증가와 마진 개선이 기대되는 소재 핵심 종목이다.

대덕전자(353200): FC-BGA 등 고부가 기판 수요 확대와 AI 서버 투자 증가가 동시에 작용하며 실적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한 상태이다.

LS ELECTRIC(010120):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초고압 송전 투자 확대의 직접 수혜주로

전력 인프라 사이클의 핵심 축이다.

리노공업(058470):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와 반도체 R&D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성장 기반이 견고하며, 고마진 사업 구조가 유지되는 점이 강점이다.

심텍(222800): 메모리 기판 가격 상승과 패키징 고도화 수요가 반영되며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는 구간이다.

HD 현대일렉트릭(267260): 글로벌 전력 설비 투자 확대와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장기 성장성이 가장 높은 전력기기 대표 종목이다.

KB 금융(105560): NIM 상승과 비용 효율화,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배당 매력이 부각되는 금융 대표주이다.

LIG 넥스원(079550): 중동 지정학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 흐름 속에서 수주 확대와 실적 성장 기대가 동시에 반영되는 방산 핵심 종목이다.

[표 1] 금주 주요 투자 유망 관심 10 종목

코드	종목명	업종	시총 (십억원)	주가(원)	주간상승률
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1,289,104.4	220,500	-1.78
000660	SK하이닉스	반도체	916,535.2	1,286,000	+4.98
166090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1,493.2	75,500	+7.86
353200	대덕전자	IT하드웨어	5,574.2	112,800	+14.05
010120	LS ELECTRIC	기계	41,700.0	278,000	+28.11
058470	리노공업	반도체	9,092.1	119,300	-3.24
222800	심텍	IT하드웨어	3,248.8	87,000	+2.72
105560	KB금융	은행	59,842.5	160,500	+1.58
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45,131.0	1,252,000	+10.89
079550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상사,자본재	20,702.0	941,000	-2.59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상승 추세 속 단기 조정 국면

결론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 **상승 추세 속 단기 조정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시장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상방을 향하고 있으나, 상승 속도에 따른 부담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는 전체 비중을 유지하되, 신규 진입은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접근이 유효하다.

주도주 유지한 가운데 순환매 대응

핵심 전략은 **주도주 유지 + 순환매 대응**이다. 반도체와 AI 전력 인프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IT 소부장 및 기계·금융 등으로 확산되는 순환매 흐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유가와 금리 변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실적이 시장을 결정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하락은 매수 기회로 해석하는 전략이 적절하다.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발표 일정]

이번 주 글로벌, 특히 미국 경제지표는 **"고용은 둔화되었지만 서비스와 임금이 버티며 경기 급락은 아닌 구간"**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핵심은 고용지표다. 비농업고용은 **73K** 로 직전 178K 대비 크게 둔화됐고, ADP 고용도 **90K** 로 절대 수준은 낮다. 이는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에서 **확연한 냉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시장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 실업률은 **4.3%로 유지**되었고, 신규 실업수당청구는 **203K** 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해고 증가보다는 채용 둔화 중심의 '소프트한 냉각'으로 해석된다.

서비스업은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ISM 비제조업지수는 **53.8**, 서비스 PMI 는 **51.3** 으로 모두 50 이상을 유지했다. 다만 직전 대비 소폭 둔화된 점은 수요 모멘텀이 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는 경기 둔화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는 구간에 진입한 모습이다.

소비·주택 관련 지표는 혼재되어 있다. 신규주택판매는 데이터 왜곡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흐름상 강한 반등이 아닌 **불안정한 흐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JOLTS(구인, 이직보고서)는 **6.87M** 으로 감소하며 노동 수요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원유재고가 **-6.234M** 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하방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데이터는
→ **고용 둔화 + 서비스 유지 + 물가 변수 잔존**이라는 구조이며,
→ 경기 침체보다는 **"저성장으로 이동하는 전환 구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2]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데이터 발표 일정 등

일자	이벤트	예측	이전	시사점
5/5, 화	서비스 PMI	51.3	51.3	서비스는 확장 유지하나 성장 모멘텀은 제한적
	신규주택판매	1K	587K	주택 데이터는 변동성이 커 방향성 판단은 제한적
	JOLTS 고용	6.87M	6.88M	노동 수요 감소로 고용 둔화 신호 강화
	ISM 비제조업	53.8	54.0	서비스 확장은 유지되나 둔화 흐름이 나타남
5/6, 수	ADP 고용	90K	62K	고용 증가폭은 제한적이며 회복 탄력은 약함
5/7, 목	실업수당청구	203K	189K	고용은 냉각되지만 아직 안정적 수준
5/8, 목	평균임금	0.3%	0.2%	임금 상승이 유지되어 물가 하방 제한
	비농업고용	73K	178K	고용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간
	실업률	4.3%	4.3%	실업률 안정으로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음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금주 주요 글로벌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이번 주 실적 발표는 **AI·반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헬스케어, 에너지·전력, 소비·여행**이 동시에 확인되는 구간이다. 금주 핵심은 **팔란티어(PLTR), AMD(AMD), 아리스타네트웍스(ANET), 쇼피파이(SHOP), Arm(ARM), 디즈니(DIS), 앱러빈(APP), 우버(UBER), 맥도날드(MCD), 길리어드(GILD), 메르카도리브레(MELI), 에어비앤비(ABNB)** 등이다.

가장 중요한 축은 **AI·반도체 인프라**이다. **팔란티어(PLTR)**는 AI 소프트웨어 수요, **AMD(AMD)**는 AI 가속기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수요, **아리스타네트웍스(ANET)**는 AI 네트워크 장비 수요, **Arm(ARM)**은 반도체 IP·라이선스 성장성을 보여준다. 이들 기업이 강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 AI 투자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해석이 강화된다.

[표 3] 금주 주요 글로벌 실적 발표 기업 등

일 자	종 목
5/4(월)	팔란티어(PLTR), 버텍스(VRTX), 윌리엄스(WMB), 다이아몬드백에너지(FANG)
5/5(화)	AMD(AMD), 아리스타네트웍스(ANET), 쇼피파이(SHOP), 이튼(ETN), 화이자(PFE), 듀크에너지(DUK), KKR(KKR), 커민스(CMI), EOG리소시스(EOG), 마라톤페트롤륨(MPC)
5/6(수)	Arm(ARM), 디즈니(DIS), 앱러빈(APP), 우버(UBER), CVS헬스(CVS), 메리어트(MAR), 도어대시(DASH), 포티넷(FTNT), 리얼티인컴(O), Cencora(COR)
5/7(목)	맥도날드(MCD), 길리어드(GILD), 맥케슨(MCK), 하우멧에어로스페이스(HWM), 메르카도리브레(MELI), 에어비앤비(ABNB), 몬스터베버리지(MNST), 모토롤라솔루션즈(MSI), 리퍼블릭서비스(RSG), 셈프라에너지(SRE)
5/8(금)	PPL(PPL), 피델리티내셔널인포메이션서비스(FIS)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두 번째 축은 **소비·플랫폼 수요**이다. **쇼피파이(SHOP), 우버(UBER), 도어대시(DASH), 에어비앤비(ABNB), 메르카도리브레(MELI)**는 온라인 소비, 이동 수요, 배달, 여행, 라틴아메리카 전자상거래를 각각 보여준다. 이들 종목의 실적이 견조하면 고금리 환경에서도 서비스 소비와 플랫폼 경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

세 번째 축은 **방어적 헬스케어와 필수 서비스**이다. **버텍스(VRTX), 화이자(PFE), CVS 헬스(CVS), 길리어드(GILD), 맥케슨(MCK), Cencora(COR)**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가진다. 실적이 안정적이면 성장주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방어주 선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이번 주는 **AI 성장주가 지수 상단을 결정하고, 헬스케어·유틸리티·에너지 기업이 하단을 방어하며, 플랫폼·소비주가 경기 체감도를 보완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순 EPS 보다 **가이던스, 수주잔고, 매출 성장률, 마진, 고객 수요 코멘트**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핀릿 리서치센터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I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